

지체소식



대구시, 2011년까지 3,711억원 투입해 친수환경 조성

대구시는 2011년까지 10개의 수질개선사업에 3,711억 원을 투입해 대구의 젖줄이자 도심을 가로지르는 금호강과 신천을 아이들이 먹 감고 다슬기가 서식하는 건강한 친수환경으로 조성한다.

이번 친수환경 조성은 신천과 금호강이 그 동안의 수질 개선 노력으로 수달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변하였지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찾아오는 외국인과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 추진한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산업 및 축산폐수 관리,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확충사업 등 맑은 물 보전을 위해 1조 9천억 원을 투자한 결과 1984년도 BOD 111mg/l 였던 금호강의 수질이 15년만인 1999년도에 5.1mg/l 로 잉어와 붕어가 서식하는 맑은 모습으로 개선되었다.

또 2005년에는 I 급수의 지표종인 수달이 신천에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수질의 개선효과로 2006년에 유엔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1년을 목표로 더 맑은 수질개선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준비 중이다.

울산시내 각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 '적합'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광오)는 4월중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매우 적합하고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사결과, 회야, 천상 2개 정수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보론 등 유해영양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유기물질인 농약류(4개 항목), 휘발성유기물질(12개 항목)등 16개 항목은 불검출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8개 항목은 불검출 및 기준치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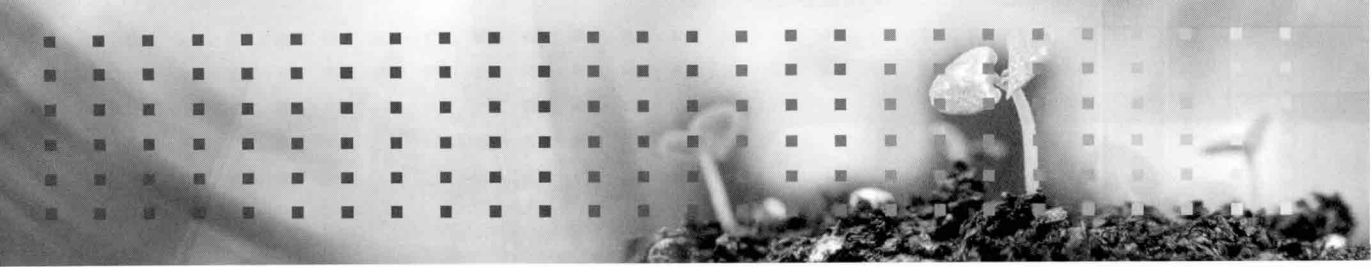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색도, 탁도(0.5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중발잔류물, 황산이온, 세제, 마간, 아연, 동, 철, 알루미늄 등은 불검출, 적합, 기준치이하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와 함께 중구 22개, 남구 31개, 동구 16개, 북구 15개, 울주군 17개 등 급수인구에 따라 산출된 검사지점에 따라 선정된 총 101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4개 항목이 불검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기상청 국제협력 관계관 워크숍 개최

기상청(청장 정순갑)은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제주 서귀포에서 아시아·남서태평양 지역 국제협력 자문관 워크숍을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했다.

두 지역의 각 기상청을 대표하는 국제협력 담당관들과 WMO 관계관 등 약 4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 지역 국가 간 협력 관계 증진 전략과 정책, 지역 현안, 국제협력담당관들의 대외 관계에서의 역할,



지역 국가들의 역량 배양 방안 모색 등을 회의 안건으로 토의했다. 지난해 5월에 열린 WMO 총회에서는 각 기상청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관계관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WMO가 추구해온 국제협력 증진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로 국제협력 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WMO가 한국을 아·태지역에서 그 첫 번째 개최국으로 지목한 것은 WMO 집행이사국 진출 등 최근 국제 기상 무대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회의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광주시, 5월부터 '오존 예·경보제' 시행

광주광역시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5월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 예·경보제'는 자동차 및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과 자외선 반응에 의해 2차 오염물질로 변화해 발생하는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된다.

오존예보는 환경부에서 개발 보급된 예보프로그램에 의해 기상정보와 대기오염현상을 근거로 다음날 대기 중의 오존농도를 예측해 발표한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 오존농도에 따라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해 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대기 중 농도가 일정량 이상으로 순간 증가하면 눈 점막과 호흡기를 자극하게 되며, 건축구조

물의 부식촉진, 농작물 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다.

시는 오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광주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언론사와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등 791개 관련 기관과 상황전파 시스템을 구축해 오존경보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울산시, 상반기 폐비닐·폐영농자재 등 94톤 수거완료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4월15일까지 농업인, 농업인 단체, 작목반, 공무원 등 연인원 1,050명이 참가, 영농기동안 논과 밭 등에 버려진 폐비닐 폐영농 자재 수거에 들어가 폐비닐 68톤, 농약빈병 1톤, 기타 폐영농 자재 25톤 등 총 94톤을 수거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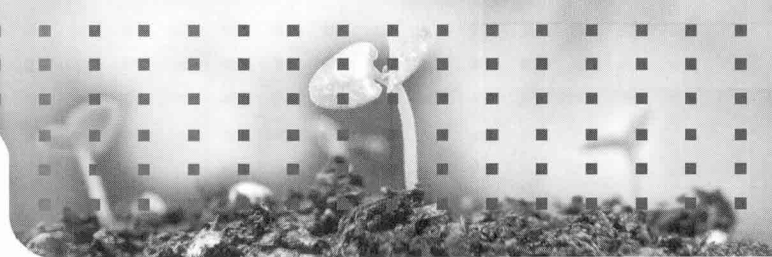
구·군별 수거량은 중구 20톤, 남구 4톤, 동구 1톤, 북구 41톤, 울주군 28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같은 수거량은 영농 시작기인 봄철에 발생한 폐영농자재 대부분을 수거한 것"이라면서 "폐비닐의 재활용과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용 폐비닐 40kg을 수거할 경우 새 비닐 6.21kg로 교환해 주고, kg당 130원의 장려금도 지급한 결과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 졌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농경지 등에 투기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농약 빈병의 경우 개당 50원의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앞으로 발생할 폐비닐, 폐영농자재(예상 발생량 329톤) 등은 영농 종기일인 오는 11월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완전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지체소식



경기도에 환경 친화적 명품건축물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성남판교지구 내 서판교에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과 차별화된 자연경사지를 최대한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명품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서판교에 들어서게 될 주거단지는 자연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주거단지로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모범적인 저밀도 주거단지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의 국제적 건축가와 국내 건축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지명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건축된다. 현재 우리의 주거문화는 산지형의 한국 지형을 무시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경사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에 익숙한 상태인데 이러한 대규모 인공지반은 주거공간과 자연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단점이 있으나, 서판교에 들어서게 될 주택 단지는 환경 친화적인 주거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경사지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인식하는 디자인 접근 방법의 개선을 통해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대지의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 형태의 주택 단지로 계획되었으며,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08년 9월에 일반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점검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지난달 24일부터 연중 폐기물 배출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광역매립장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광역매립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양 구청별로 2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 배출

신고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자와 배출내역을 확인해 매립장현장에서 반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사전 협의를 거쳤다.

이번 점검에서 배출자의 신고내역과 일치여부,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그 외의 폐기물이 혼합여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혼합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은 “앞으로도 이번 점검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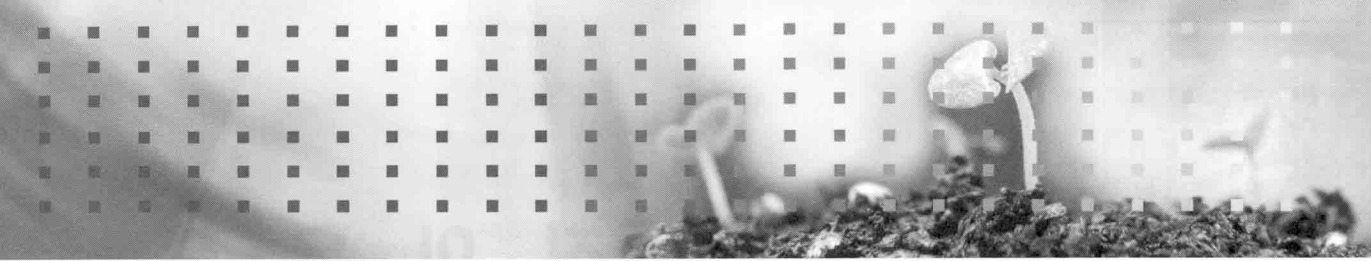
서울시, '수도전문 박물관' 개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진익철)는 서울 상수도 통수 100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의 수도전문 박물관 개관식을 지난달 24일 오후 3시, 초등학교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숲 옆 수도박물관 원형광장에서 개최했다.

고종황제가 상수도의 부설 경영에 관한 특허를 미국인 콜브란(C.H. Collbran)과 보스트윅(H.R. Bostwick)에게 1903년에 허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위생적인 상수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906년 8월 초에 독도정수장의 완속 여과지 공사에 착공하였고, 2년 후 8월에 공사를 준공했다. 준공 직후인 1908년 9월 1월부터 4대문 안과 용산 일대에 하루 1만2500㎡의 급수를 시작해 우리나라 최초의 위생적이고 편리한 수도물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수도박물관 시설은 최초의 상수도 생산시설인 구 독도정수장(수도박물관)과 완속여과지 등 상수도 역



사의 현장을 복원, 정비해 수도박물관, 물과환경전시관, 별관, 완속 여과지로 총 4개동 규모로 1개동을 신축하고 3개동을 정비했다.

각 전시실은 서울 상수도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기기 등을 전시한 학습 공간, 수자원의 소중함과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공간, 시청각적인 전시매체를 도입해 '생명 탄생의 물'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체험 전시공간으로 구성했다. 관람은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하절기 평일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관람료는 무료다.

전주시, '숲과 함께 하는 마을 쉼터' 조성

전주시에서는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생활권별 문화적 특성을 가진 공간을 창조적으로 재조성하는 작은문화 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올해 사업비 6억5천만원을 투자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9-27번지 일대 '마당재' (면적2211㎡) 에서 실시된다. '마당재' 라는 지역적 역사·문화적 특성을 감안,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린봉 끝자락에 위치한 마당재는 큰 도로변과 연결하고 지역주민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조성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송동의 노송(老松)숲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 이용과 운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게이트볼장, 윗놀이장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26만8천그루 식재를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와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를 조성, 전주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배출가스저감장치 상설 무료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미세먼지(PM10)의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총 4,579억 원을 투자하여 160천대의 운행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주로 입경이 2.5μg이하로 폐 속에 깊숙이 침입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세먼지(PM10)를 70%이상 저감시켜 대기질 개선과 함께 도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저감장치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원시 등 24개시에 상설 무료점검반을 편성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모든 운행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관내 414개 정기검사장과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탈거·훼손, 배출가스 누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배출가스검사(매연, CO, HC)를 무료로 실시하여 장치의 성능을 점검할 계획이다. ㉔